'한국 화랑단' 설립…청소년 신행 이끈다

종립학교·사찰 학생회 단일조직화…종단차원 지원·관리

21세기 한국불교를 짊어지고 나갈 (가칭)한국화랑단이 설립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은 내년을 '불교청소년의 해'로 정하고 청소년신행을 관장할 전국조직을 모색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종립학교 교법사들의 모임인 전국교법사단(단장 김종환)도 정부의 교육개혁안에 따른 대책마련과 함께 포교원이 추진중인 청소년단체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포교원이 추진중인 한국화랑단은 학교와 사찰불교학생회를 단일조직화하여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하며 전국의 학교와 사찰로 조직을 확대한다는것.

이같은 교계의 청소년 단체 설립 움직임은 정부가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시화되었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종합생활기록부 시안을 통해 '학업성적뿐 아니라 봉사활동, 특별활동도 기록'하도록 했다. 특별활동에는 단체활동도 포함되어 있어 각사찰과 학교의 불교학생회활동이 종합생활기록부에 오르게 된것이다.

현재 중·고학교에서 단체활동으로 인정되는 단체는 청소년연맹, YMCA 등 50여개이며 불교계단체로는 청소년교화연합회와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불교청년회소속 불교학생회가 종합생활기록부에 기재될수 있다.

동대부중 우인보 교법사는 "대부분의 학교 및 사찰불교학생회가 독립활동을 하고있어 이들을 하나로 묶을 종단차원의 새로운단체가 요구된다"며 "내년부터 실시되는 종합생활기록부에서 불교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한국화랑단의 창립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 지도자들은 "새 조직을 구성하는것은 열악한 청소년포교 현실에서 역량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며 "기존의 단체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포교원은 오는 15일 녹수청산에서 청소년 지도자들을 초청, 불교청소년의 해 기획팀을 구성하고 △한국화랑단 결성 △청소년포교사 자격증수여 △교육개혁에 따른 불교계의 대책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통도사에서 열린 방송작가 초청 불교학술세미나에 43명의 작가가 동참했다.

방송작가 초청 불교학술세미나 취재기

43명 참가…도법스님·강건기교수 주제발표

"불교는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종교라고 알아왔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생활실천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25일과 26일 이틀간 통도사에서 열린 제12회 방송작가초청 불교학술세미나에 참가한 방송작가 43명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오후 3시가 넘어 통도사에 도착, 피곤함도 잊은채 일정에 들어간 첫 순서는 '불교의 생명사상'을 주제로 한 도법스님(선우도량 대표)과 강건기교수(전북대 철학과)의 강연.

도법스님은 '화엄경에 나타난 생명사상'을 통해 "존중하므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의 질서를 깨우쳐 주는 것이 불교 생명사상"이라고 설명했다.

강건기교수는 "불교는 관계와 관계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생명에 대한 확신과 그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법스님과 강건기교수는 사회정서를 순화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필봉에 담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질의와 응답시간에 작가들은 '관계와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부처님의 연기사상에 큰 관심을 보여줘 열린 불교사상에 대한 열띤 대화의 장이 마련돼 불교정신을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 됐다.

다음날 부산 범어사 감천직지사 를 순례하고 돌아오는 길은 출발할 때와 달리 작가들은 불교에 대한 관심의 눈이 모아진 가운데 버스에 올라 성철스님의 비디오 테잎도 진지하게 지켜봤다.

지난 72년에 윤청광씨의 발원에 의해 범어사에서 시작된 방송작가세미나는 올해로 12회를 거치며 한운사 신봉승 김교식 임충식씨 "등 75명의 작가들이 불교에 입문 수계까지 받았다.

한편 입재식에서는 윤청광씨가 공로패를 원로작가 박서림 백승찬씨가 감사패를 받았다.

통도사=김원우 기자

"피부로 불교체험 기회" 연기법 놓고 토론 열기

"불교는 자신의 깨달음 이라는 가르침에 감명을 느꼈습니다"

참가자중 유일한 기독교신자로 불교를 알고 싶어서 불교관련행사에 처음 참가하게 됐다는 이혜원씨(MBC 드라마 작가).

세미나 참석 기독교 신자 이 혜 원씨

"이제 불교교리 자신있게 쓸 터"

이번 방송작가세미나를 통해 절은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편안하고 정신적인 것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사실 그간은 작품을 쓰면서도 불교교리에 접근하지 못하고 피해버렸지만 이제는 책을 뒤져서라도 바르게 불교교리를 써야지요."

미국 감옥에도 참선바람

'삶의 본질' 공부…선만화 보급 계획도

감옥을 선방(禪房)으로 만든다.

미국에서 지난해 수감자들의 정신적 정화를 위해 결성된 비영리 단체 'Engaged zen Foundation'는 뉴욕의 싱싱주 감옥에 죄수들의 선수행을 위한 법촌과 도서관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다른 감옥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정보에 의하면 이 단체는 싱싱주 감옥의 선센터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Z·F는 재소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소책자 〈Gateway Journal〉을 만들 예정이다. 이 소책자 외에도 선을 소재로 한 만화책도 펴낼 계획이다. 그림은 둔칸 에 글슨이라는 작가가 그린다.

E·Z·F는 선만화를 통해 수감자들의 정신정화 뿐만아니라 선수행의 기본적인 방법도 소개할 계획이다. 싱싱주 교도소에서 시도되는 이같은 프로그램은 미국 전체 교도소로 확산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재소자들은 삶에 대한 용기 얻을 것이다.

日국보 1호 '광륭사 반가사유상' 첨단기술이용 내진장치 설치

해외통신

일본 경도 광륭사는 최근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일본 국보1호 '미륵보살반가상'에 첨단기술을 이용한 내진(耐震)장치를 설치했다.

일본이 문화재에 내진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상을 받치는 대좌에 설치된 내진장치는 상하 두개의 스테인레스판 사이에 특수설계된 완충기와 용수철을 넣어 리히터 규모7의 지진도 규모3 정도로 진동을 완충할 수 있다는게 사찰측의 설명이다.

광륭사는 지난 1월 고베지진 당시 성관음 입상등 문화재 두점이 쓰러져 팔이 부러지는 등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한편, 일본국보1호인 광륭사의 '미륵보살반가상'은 백제양식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의 국보 83호인 금동미륵보살반가상과 흡사한 목제작품이다.

◇일본국보1호 경도 광륭사 반가사유상

"김교각스님은 신라 신문왕 아들"

소설가 이순창씨 삼국유사 '오대산 5만진신' 기록 토대 주장

중국 안휘성 구화산 화성사에 등신불로 모셔져 있는 김교각(金喬覺)스님이 누구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길림성 사회과학원 조선연구소 유지영교수와 안경사범학교 셰수텐(謝樹田)교수 등 중국학자들이 신라 경덕왕의 형이거나 성덕왕의 장자 김수충(金守忠)이라고 한 설에 대해, 소설가 이순창씨는 신문왕의 둘째 아들 보질도(寶叱徒)태자라는 가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이순창씨는 '김교각은 보질도태자다'란 논문을 통해 "謝교수의 논문을 수용하게 되면 김지장(김수충) 개인의 기록은 연대기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선대(先代)의 기록은 엉망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수충의 출생연대를 696년으로 잡을 경우 아버지인 성덕왕이 8세에 성정왕후와 사랑에 빠졌고 이어 김수충을 낳았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따라서 이씨는 〈삼국사기〉의 기록보다는 〈삼국유사〉의 '오대산 5만진신'의 기록과 중국측 사료를 검토할 때 신문왕의 둘째 아들인 보질도태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김지장의 생몰연대는 689~789년이 된다.

조계종 전국 사무장 대상 설문조사

"사찰 지역문화발전 이바지" 91%
"종무원부족 업무처리 애로" 47%

조계종 전국 사찰의 사무장들은 지위의 만족도에 있어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고, 재가종무원에 대한 스님들의 인식변화, 보수의 현실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사무장의 대다수(90.6%)가 사찰이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조계종이 7월 20일~8월9일까지 전국의 사무장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번 설문에는 32명의 사무장들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46.7%가 종무원의 수가 부족 신속한 업무처리가 힘들다고 답했다. 각 사찰의 컴퓨터 보유율은 91.2%로 상당히 높았지만 종무행정에 대한 컴퓨터활용도에 있어서는 단순한 신도명부 정리, 주소 스티커 인쇄 등 한정되어 있다고 나타나 종무원에 대한 컴퓨터 교육과 종무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모든 사찰에 신도회가 있으며(90.1%), 사찰운영위원회는 68.8%가 구성했고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 21.9%. 사찰운위 구성의 운영에 있어 신도교육이 가장 중요 요인이라고 사무장들은 판단하고 있었다. 사찰운위 구성을 통해 사찰을 공의운영해 나가는데서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재무 회계제도미비, 신도 교육 및 조직이 부재해 책임있는 신도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사찰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영의 비 전문성과 무계획성 비공개를 지적했고 앞으로 사찰운영에 있어 신도의 참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포교 등 신도신행관련사업(43.8%)으로 응답했다. 〈숙〉

방송가소식

佛放준비위, '충북불교진흥원' 설립

충북불교방송 개국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사단법인 형태의 가칭 충북불교진흥원을 설립키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사단법인 설립안건을 상정하여 충북불교방송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불교방송 운영을 주목적사업으로 하고 '충북 불교진흥원'을 설립하여 15~20인 이내의 이사를 영입키로 했다.

'일본속의 한국불교'

btn 영상사업부 출시

불교텔리비전 영상사업부는 개국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영했던 '일본속의 한국불교'를 비디오로 제작하여 11일부터 출시한다.

'일본속의 한국불교'는 제 1부 머나먼 아스카, 제 2부 도래인의 숨결, 제 3부 불국의 땅 일본 편으로 구성돼 있는 60분용 3부작 비디오물.

방송 하일라이트

btn (ch32)

불자연예인 추석한마당

퀴즈특급 이뭐꼬 (8일 10:10~11:00) 추석특집으로 불자연예인 김용림 김혜정 박혜란 이옥주 민용태 김국환 김민종 표인봉 김경식씨를 초청 추석맞이 한마당을 펼친다.

차례상 욟게 차리는 방법

TV 신행상담 (7일 오전 11시10분~12시) 추석을 맞아 제사에 대한 궁금증과 제사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고민을 듣고 차례상 차리는 법과 그속에 담긴 의미등을 살펴본다.

BBS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9.7MHz(광주))

한가위 유래·풍습 소개

한가위만 같아라 (8일 10:05~11:00) 한가위와 관련된 유래와 풍속을 알아보는 시간.

음악으로 화목한 분위기

가을을 기는 음악여행 (9일 12:10~20:00) 명절의 의미와 조상에 대한 정의심,가족간의 화목한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차분하고 아름다운 음악들로 꾸며본다.

바이올린 협주곡 감상

차 한잔의 선율 (오전 9시5분~10시)) 마르께스의 작품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다〉를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함께 감상해 본다.

KBS-1

팔공산일대 불교유적

우리문화유산을 찾아서 (14일 10:15~11:00)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과 서정윤 시인이 출연하여 팔공산 일대의 동화사 선본사 관암사등 사찰들과 갓바위 부처님등 불교유적을 더듬어본다.

EBS

동승이 바라본 사바세계

문학기행 (6일 저녁 9시35분~10시15분) 김성동씨의 작품 '산란'을 살펴본다. 동승의 눈에비친 사바세계에 대한 동경및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간이 진실로 바라는 갈등이 전반에 흐르고 있다.

출판·편집 안내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인생은 짧고 기록은 영원합니다. 도서출판 사람들은 사회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는 물론 보통사람들의 자서전·회고록·개인기록 등을 전문적으로 기획·집필·편집·광고를 해 드립니다.

◎자서전 ◎회고록 ◎출판대행
◎수필집 ◎시 집 ◎편집대행

※ 인생 경험과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스님과 불자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출판 기획만 원하시는 분, 출판 아이디어나 출판 예정인 원고가 준비된 분의 연락을 환영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전화 혹은 방문해서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에서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전문적으로 기획·집필·편집·제작도 해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번지 2호 선덕빌딩 3층
도서출판 사람들 전화 : (02)725-6752~4 팩스 : (02)725-6920

전세계 기독교회에 보내는 오쇼 라즈니쉬의 최후통첩

기독교와 禪

기독교가 미쳤는가? 라즈니쉬가 미쳤는가?

'정신적인 테러리스트', 라즈니쉬는 이 책에서 예리하고 투명한 선(禪)의 칼로 기독교계의 실상과 함께 기독교 믿음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낱낱히 질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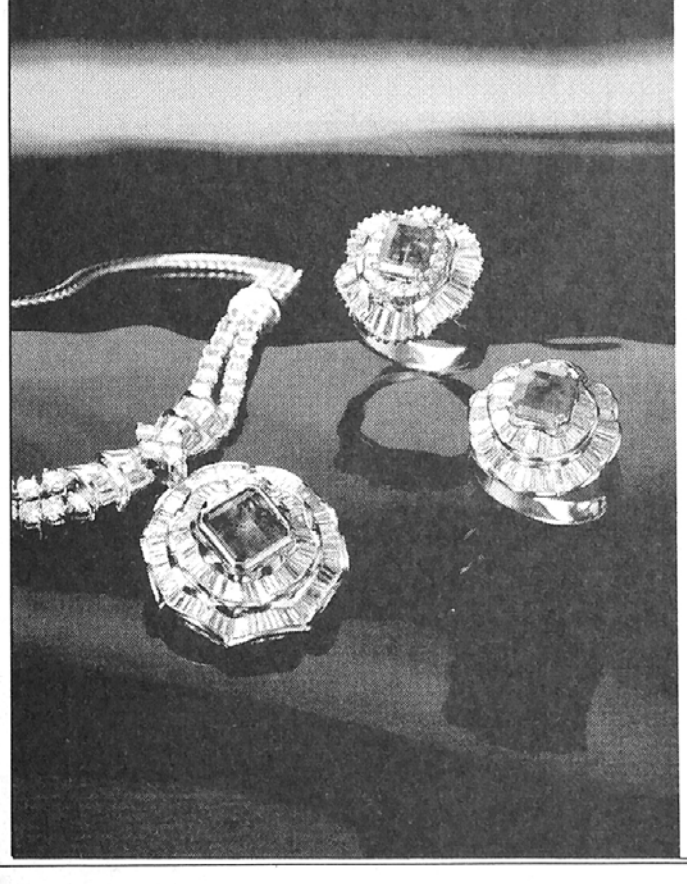
편협한 기독교인들은 당신이 이 책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하지만 참된 기독교인들은 이 책을 "형식적인 기독교의 옷을 벗고 참된 그리스도가 되라!"는 라즈니쉬의 사랑어린 충고로 받아들일 것이다.

356면/값 7 000원

라즈니쉬 유머집의 총결정판 베스트셀러
지혜로운 자의 농담
틸이 매울 로기·틸종고·틸지이 유머의 극치! 삶을 아름다운 농담처럼! 값5000원

정신출판사 Tel. 714 - 4273 Fax. 711 - 4715

나만의 개성과 우아함 청우



JEWELRY CHUNGWOO

섬세하고 정교한 제품,
서정적인 주제와 독특한 감성표현,
각개인의 개성을 소중히 하는
디자인.....
청우에서 당신만의 개성을
만나십시오

혼수예물에서 다양한
보석장신구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제품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청우 유자야

전시경력
1971~1972 국전 서양화 부문 입선 20회 21회
1976 파리 니델재산 공모전 입상
1977 파리Cite International des arts 주최 전람회 출품
1978 불란서 전국 사진공모전 출품
1979 불란서 파리 미술대학 미술 석사학위 취득
1979 파리 프리마그 로지에 공모전 입상
1980 파리 화랑 전람회 출품
1977 불란서 예술원 공인 미술작가
1980.6 제 1회 개인전(신세계 백화점 화랑)
1982~1984 한국 공예가회 출품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5-1.2
한양타운 107호 / 우편번호 135-120
TEL 3442~4434~5